

여성 징병제

202211810 최시윤

징병제란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의무 병역 제도 이다.

그렇다면 여성 징병제란 여성 또한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만드는 병역 제도라는 뜻이다.

여성 징병제 얘기가 나온 이유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으로 인해서 병역 인원이 줄어들게 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구 절벽세대가 생기고 병역 인원이 해결되지 않자 나온 방안이 이 글에서 다룰 여성 징병제라는 것이다. 우선 미디어나 기사, 뉴스에 나오는 군대의 이미지는 학대나 폭력이 많은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을 보면 드러난 것들만 봤을 때도 많은 사건사고들이 있다는 것인데 드러나지 않은 사건사고들은 드러난 사고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군대는 사회처럼 열린 공간이 아니라 갇혀진 공간에서 훈련 받고 생활하는 공간이라서 충분히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 현재 군대에서도 같은 남성 즉 동성끼리도 성폭행, 성추행 등등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성이 군대에 간다면 더 심할 것이고, 아무리 모든 상황을 우려해서 따로 나눈다고 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함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군대라는 집단은 나라를 지키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집단인데 전쟁이 났을 때 여군이 적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성적 학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군보다 위험요소가 크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이 많고 여성 2명, 3명이 해내는 일을 남성 혼자서 해낼 정도로 능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여성이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훈련을 따로 나눠서 받으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고, 각자가 잘하는 위치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군대에서 하는 일들은 높은 계급을 제외한 일반 병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일이 힘을 써야 되는 일이 대부분이고 남녀 따로 상황에 맞게 훈련을 받으면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월경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거나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그런 사람들은 훈련을 하지 못하고 쉬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 징병제를 실시할 경우 여군도 남군 못지않게 수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현재 남군들만 있는 부대에서 따로 여군들이 생활할 숙소, 화장실, 여성용품, 심지어 옷이나 신발 등등 많은 것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나라가 현재 전쟁 진행 중인 국가도 아니고 굳이 숙소나 화장실을 따로 지으면서까지 국방력을 위해 예산을 늘릴 필요는 없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고, 휴전 중인 국가라 충분히 국방력에 그 정도 돈을 쓸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돈을 쓸 가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역지로 여성까지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하면서 돈을 쓰는 것보다 현재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남성들에게 기존에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된 군 가산점처럼 따로 제도를 만들거나 특별한 혜택을 더 주고, 논란이 많은 군대 식단들 같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쓰는 것이 훨씬 국방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예를 들면 외국의 경우 나라를 지키는 군인 분들을 대하는 태도, 대우 등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 혜택도 많을뿐더러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문제들만 나라에서 바꾸면 역지로 군대를 빼는 사람들도 적을 것이고, 오히려 자처해서 군대를 가는 여성분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병역 인원을 늘리면 충분히 있는 인원으로도 가능한 문제인데 역지로 군대를 보내서 훈련을 받게 만드는 제도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안 좋게 보여진다. 현재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로 인해 군대를 갔다가 나오면 여자는 이미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로 인해 여성들도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결혼의 시기가 늦어질 것이고, 결혼을 늦게 하면 노산 등의 문제로 인해 지금보다 더 심한 저출산이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문제로 여성 징병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면 취업을 하는 나이가 늦어질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뽑을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에서 쓸 인력이 부족해진다. 그렇게 되면 군대는 잘 돌아갈지 몰라도 사회는 잘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찬성 측 입장에서 여성 징병제를 바라본다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헌법 재판소에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것은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만을 위해서 가야 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하지만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긴 하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차라리 모병제를 도입해서 군대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위험성도 적고 부담도 덜 될 것이다. 항상 새로운 것을 탐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가꾸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